



2026 VISION

# 훈훈한 구역, 함께 키우는 아이들

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[전도서 4장 9절]



## 가정

#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



중일교회 가정사역부

## 성경이야기

안녕하세요, 친구들!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“방을 깨끗이 치워!”라고 했는데, 장난감 몇 개만 치우고 “다 했어요!”라고 말한 적 있나요? 마음속으로는 “이 정도면 괜찮겠지!”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부모님은 “끝까지 다 해야지!”라고 하시겠죠?

오늘 성경에는 사울 왕 이야기가 나와요. 하나님은 사울에게 “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”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어요. 좋은 양과 소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남겨두고,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. 사울은 “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요!”라고 말했어요.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.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보셨어요.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. “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.” 하나님은 우리가 멋지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보다,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.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. “하나님 말씀이 제일 좋아요!” 하고 믿을 때, 우리는 그대로 따르게 돼요.

우리도 가끔은 사울처럼 “이 정도면 괜찮겠지?” 하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. 그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해요. 부모님 말씀 듣기, 친구에게 친절하기,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,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에요.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, 순종하는 친구들을 기뻐하세요!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어린이가 돼요.

중일교회 가정사역부

